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핵심 결과

보험사 임원·직원 보수 2018~2025

공시로 본 8년. 생명보험 16곳, 손해보험 11곳(재보험·보증보험 포함)

보험사 27곳의 사업보고서(2018~2025년)와 2026년 반기보고서로 임원과 직원의 보수를 다시 계산했다.
8년 내내 값이 있고 평균 기준 제외가 없는 15곳의 직원(임원 제외) 1인 평균은 83백만원에서 121백만원으로 늘었다.
2025년 등기이사 1인 평균은 직원 1인 평균의 4.7배(21곳 회사 중앙값)였다.

> 직원(임원 제외) 1인 평균, 8년 공통 15곳
>
> **+45%**
>
> 2018년 83백만원 → 2025년 121백만원

지표	값	기준
미등기임원 1인 평균	258 → 352백만원(+37%)	8년 공통 19곳
등기이사 ÷ 직원 1인 평균	4.7배	2025년 21곳 회사 중앙값
상위 5명 보수 중 퇴직소득	생명보험 28%, 손해보험 41%	2025년, 상위 5명 표 공시 총액 대비
회사별 공시 1위의 중앙값	생명보험 12.3억원, 손해보험 18.6억원	2025년, 상위 5명 표 1위
상반기 순이익 증감률	생명보험 +18.8%, 손해보험 +10.8%	2026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대상은 사업보고서를 내는 보험사이고, 보수는 공시된 범위 안의 값이다. 상위 5명과 이사·감사 개인별 보수는 5억원 이상만 공시돼 그 아래 사람은 알 수 없다. 회사별 값, 연도별 표, 회사 카드는 별도 데이터북(88쪽)에 있다. 주총 한도 대비 지급률은 범위를 직접 확인한 근거가 적어 표지에 두지 않고 본문 참고 지표로 둔다.

02 대상과 방법 / 03~04 직원 연봉 / 05~06 임원과 직원의 격차 / 07~09 회사별 비교 / 10~12 고액 보수의 모습 / 13 분석의 틀 / 14 성과보수 이연 / 15 주총 한도 대비 지급률 / 16~19 실적과 보수 / 20 2026 상반기 / 21 한계와 데이터북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대상과 방법

공시 범위 안에서 다시 계산한 기준

구분	내용
대상	사업보고서를 낸 보험사 27곳(생명보험 16곳, 손해보험 11곳).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는 보험사(AIA·메트라이프 등 외국계와 하나생명·캐롯 등)는 대상 밖
기간	2018~2025년 사업보고서, 2025·2026년 반기보고서. 보수 상위 5명 공시가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실렸다
직원	직원 현황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다. 직원 = 직원 현황 − 미등기임원(총액, 역산 인원 각각)
업권 1인 평균	회사별 총액 합 ÷ 회사별 역산 인원(총액 ÷ 공시 1인 평균) 합. 회사 구성과 인원 비중이 바뀌면 값도 바뀐다
순이익	2022년까지 FISIS, 2023년부터 DART(별도). 2023년 IFRS17 도입으로 2022→2023 비교는 끊었다
등기이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뺀 등기이사. 업권 값은 회사 중앙값

직원 평균에서 뺀 회사-연도 18건

회사-연도. 회사별 값은 데이터북에 남기고 업권 평균·배율 중앙값·순위·실적 비교에서 뺐다

구분	건	회사·연도	이유
불일치 확인	15	메리츠화재 2019~25, 한화손보 2018~25	주석이 1인 평균을 일부 직군으로 냈다고 적음
보수적 제외	3	농협생명 2018, 흥국화재 2023·2025	역산 인원이 기말 인원과 15% 넘게 다름. 연중 입퇴사로도 생기는 차이라 오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두 표 역산 인원이 비슷한 것은 숫자상 비슷하다는 뜻이고, 같은 인원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 급여에서 퇴사자를 빼고 재직자만으로 집계했다고 적은 회사(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가 있는 등 회사별 산정 기준이 달라 업권 평균은 여러 기준을 섞은 값이다. 증감률과 비중은 반올림 전 원값으로 계산했다. 표시값으로 계산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구성비 합계는 반올림으로 100%와 다를 수 있다. 데이터북 5~6쪽.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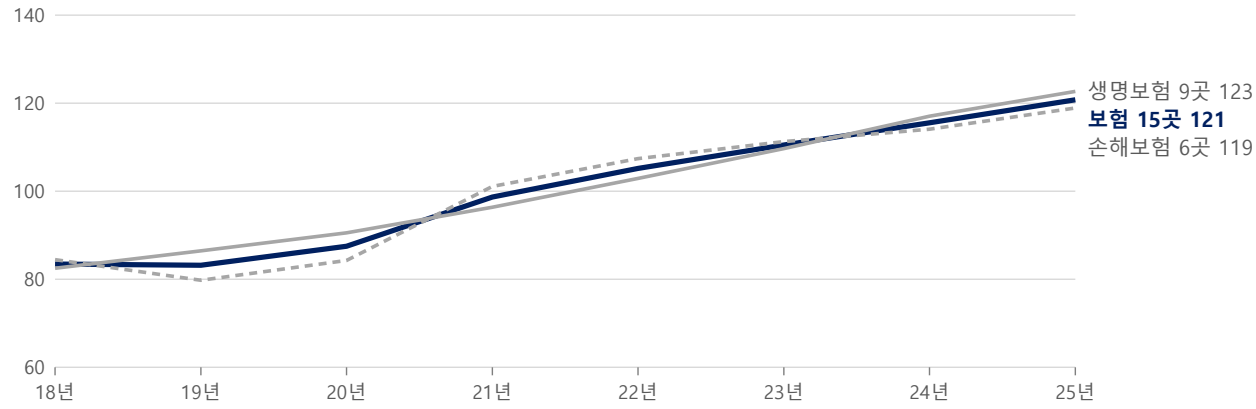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직원 연봉

직원 1인 평균, 8년 공통 15곳 +45%

직원은 임원 제외. 8년 내내 값이 있고 평균 기준 제외가 없는 같은 회사끼리 본 가중평균

직원(임원 제외) 1인 평균

백만원, 8년 공통 표본. 세로축은 60부터



연도	생명보험 9곳	손해보험 6곳	보험 15곳	보험 그해 전체(곳)
2018	82	84	83	83(19)
2019	86	80	83	83(19)
2020	91	84	88	87(19)
2021	96	101	99	96(20)
2022	103	107	105	104(21)
2023	110	111	110	107(20)
2024	117	114	116	113(22)
2025	123	119	121	120(21)
18→25	+49%	+41%	+45%	+44%

그해 공시 회사 전체로 낸 값(오른쪽 열)은 회사가 들고 나도 계속 이어지고, 공통 표본은 회사 구성이 같다. 두 값의 2018→2025 증가율 차이는 1%p다. 업권 가중평균이라 개인의 임금 인상률로 읽지 않는다. 데이터북 8쪽.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직원 연봉

2025년 같은 21곳: 직원 120, 임직원 124백만원

같은 회사끼리 직원, 공시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임직원(직원 현황 + 등기이사)을 견줬다

1인 평균, 2025년 세 값이 다 있는 같은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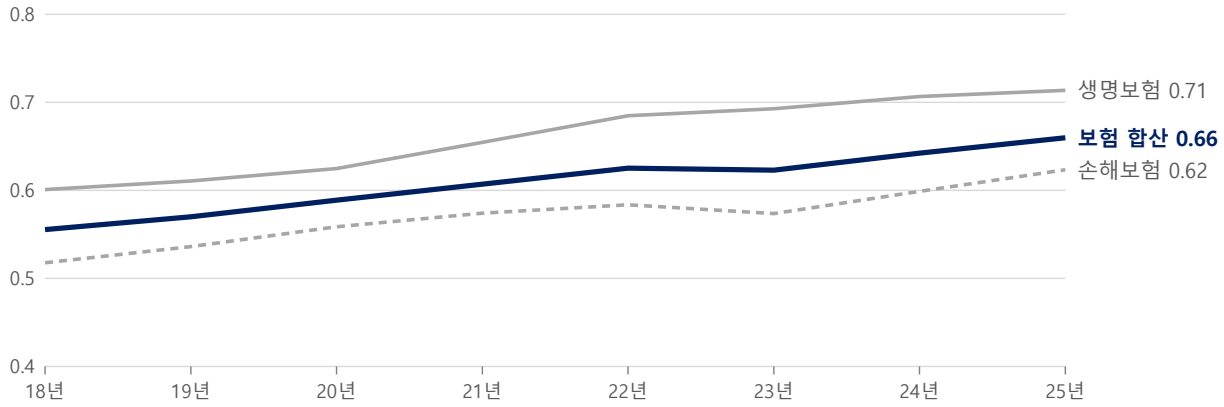
백만원

업권	회사	직원(임원 제외)	공시 직원	임직원
생명보험	13곳	121	125	125
손해보험	8곳	118	121	122
보험 합산	21곳	120	123	124

보험 합산에서 미등기임원을 넣으면 1인 평균이 +2.5%, 등기이사까지 넣으면 +3.3% 달라진다.

성별 임금 비율(여성 ÷ 남성 1인 평균)

배. 직원 현황 성별 행(미등기임원 포함), 직급·근속·직무 구성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비율. 세로축은 0.4부터



보험 합산 0.56배(2018년) → 0.66배(2025년). 데이터북 9·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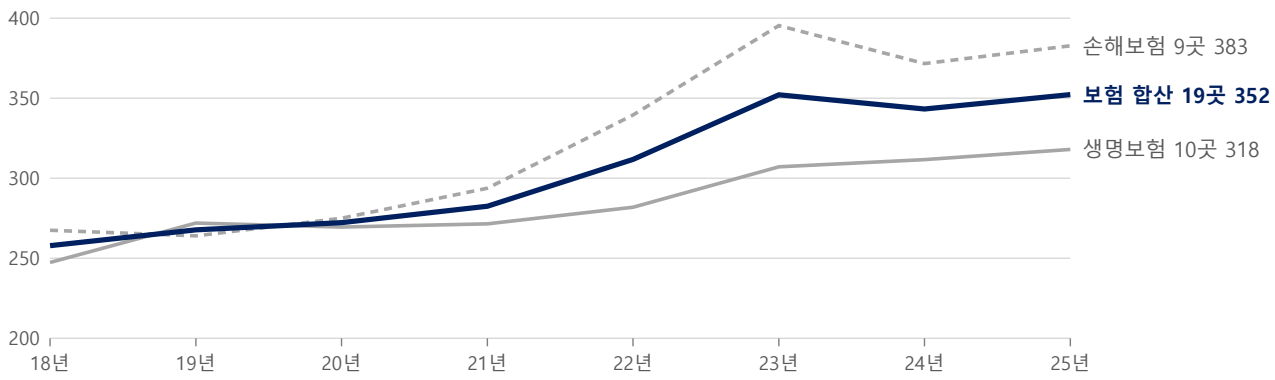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미등기임원 1인 평균, 8년 공통 19곳 +37%

미등기임원은 공시 1인 평균의 가중평균, 등기이사는 회사 중앙값

미등기임원 1인 평균

백만원, 8년 공통 표본. 세로축은 200부터



연도	미등기 생명	미등기 손해	미등기 보험	등기 생명	등기 손해	등기 보험
2018	247	267	258	412	581	448
2019	272	264	268	448	464	463
2020	270	275	272	522	784	583
2021	271	294	283	518	552	518
2022	282	339	312	396	627	484
2023	307	395	352	497	751	515
2024	312	372	343	462	664	499
2025	318	383	352	371	636	484

등기이사 1인 평균(회사 중앙값)은 퇴직금 등 일회성 지급액과 대표이사 보수 변동의 영향을 받아 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생명보험 371, 손해보험 636백만원. 데이터북 10~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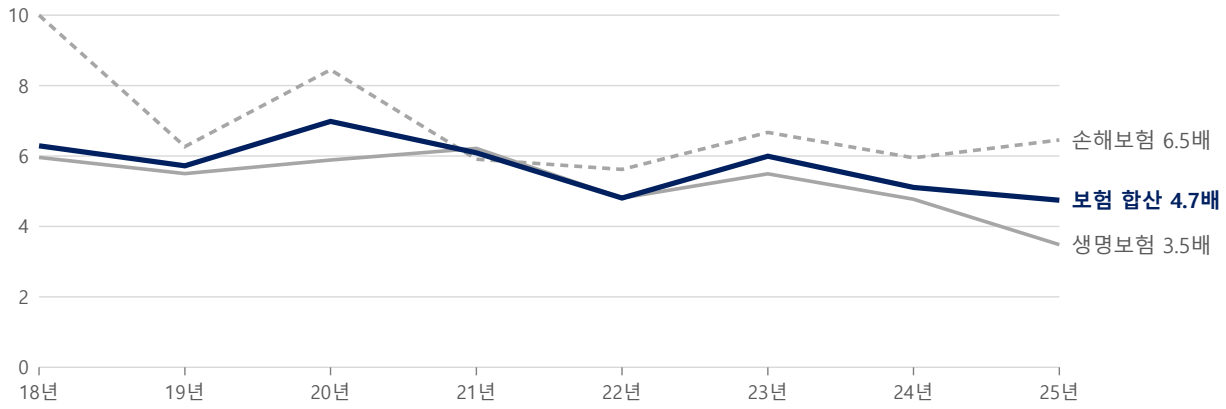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25년 등기이사는 직원의 4.7배(생명보험 3.5, 손해보험 6.5)

회사마다 등기이사 1인 평균 ÷ 직원(임원 제외) 1인 평균을 내고, 업권은 직원 평균 기준 제외 회사-연도를 뺀 중앙값

등기이사 ÷ 직원 1인 평균

배, 회사 중앙값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 합산	보험 회사 수
2018	6.0	10.6	6.3	19
2019	5.5	6.3	5.7	19
2020	5.9	8.5	7.0	18
2021	6.2	5.9	6.1	20
2022	4.8	5.6	4.8	21
2023	5.5	6.7	6.0	20
2024	4.8	5.9	5.1	22
2025	3.5	6.5	4.7	21

직원 1인 평균 기준이 다른 회사-연도(대상과 방법 쪽)는 분모를 믿기 어려워 중앙값에서 뺐다. 그 회사까지 넣은 2025년 24곳 중앙값은 5.0배다. 데이터북 18쪽도 같은 기준이고 전체 값을 함께 적었다. 배율은 회사 값이라 등기이사 수가 적은 회사에서 한 사람의 보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다. 회사별 값은 데이터북 B-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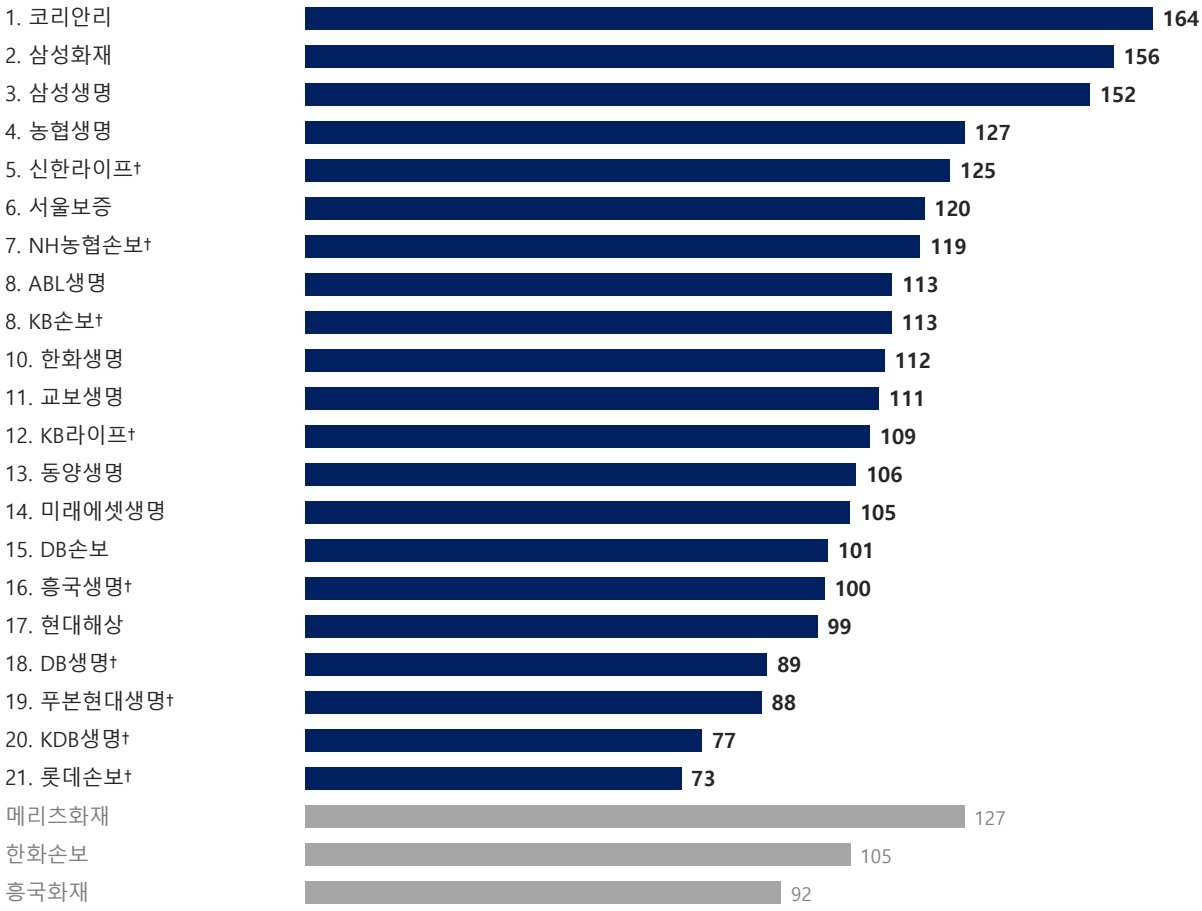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25년 직원 1인 평균: 코리안리 164백만원부터 롯데손보 73백만원까지

회사별 직원(임원 제외) 1인 평균. 평균 기준이 다른 회사는 순위 없이 회색으로 아래에

2025년 직원 1인 평균

백만원, 21곳 순위 + 회색 3곳



분모를 기말 인원으로 바꾸면 순위가 바뀌는 회사

백만원. 본문 = 총액 ÷ 역산 인원, 기말 = 총액 ÷ 기말 인원. 순위가 같은 나머지 13곳은 생략

회사	본문	기말	순위
삼성화재	156	153	2 → 3
삼성생명	152	154	3 → 2
신한라이프†	125	122	5 → 6
서울보증	120	123	6 → 5
KB라이프†	109	102	12 → 13
동양생명	106	107	13 → 12
흥국생명†	100	94	16 → 17
현대해상	99	101	17 → 16

† = 미등기임원 포함 주석이 없거나 두 표의 역산 인원이 숫자상 다른 회사(차감 조건 미확인). 회색 3곳은 1인 평균을 일부 직군으로 냈거나 역산 인원이 기말 인원과 15% 넘게 달라 업권 평균에서 뺀 회사다. 2025년 순위표 21곳은 분모를 바꿔도 1위가 같고 순위 변동은 최대 1계단이다. 회사 평균은 급여 집계 기준(재직자만, 직군)이 회사마다 달라 차이가 작은 회사끼리의 순서는 산식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데이터북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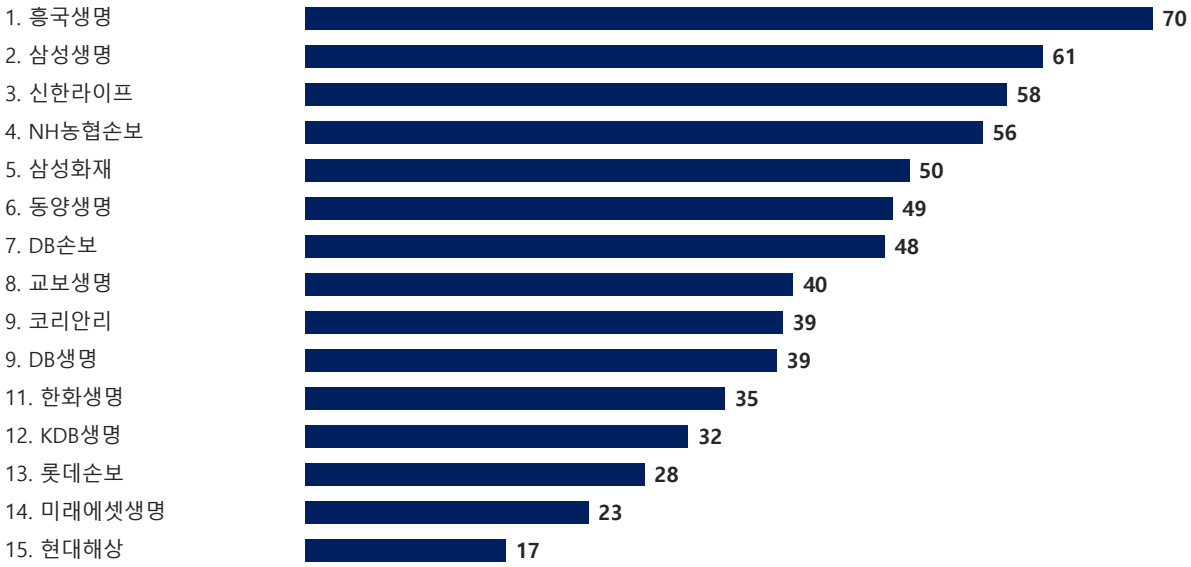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18→2025 직원 1인 평균 증가율: 흥국생명 +70%부터 현대해상 +17%까지

8년 내내 값이 있고 평균 기준 제외가 없는 15곳(직원 연봉 장의 공통 표본)

직원 1인 평균 증가율, 2018→2025

%



	증가율 중앙값	최대	최소
15곳	+40%	+70%	+17%

회사 증가율은 그 회사 직원 구성(직군, 근속, 신규 채용)이 바뀌어도 움직인다. 개인의 임금 인상률로 읽지 않는다. 신한라이프의 2018년 값은 2021년 오렌지라이프와 합병하기 전 신한생명 단독 값이다. 데이터북 C(회사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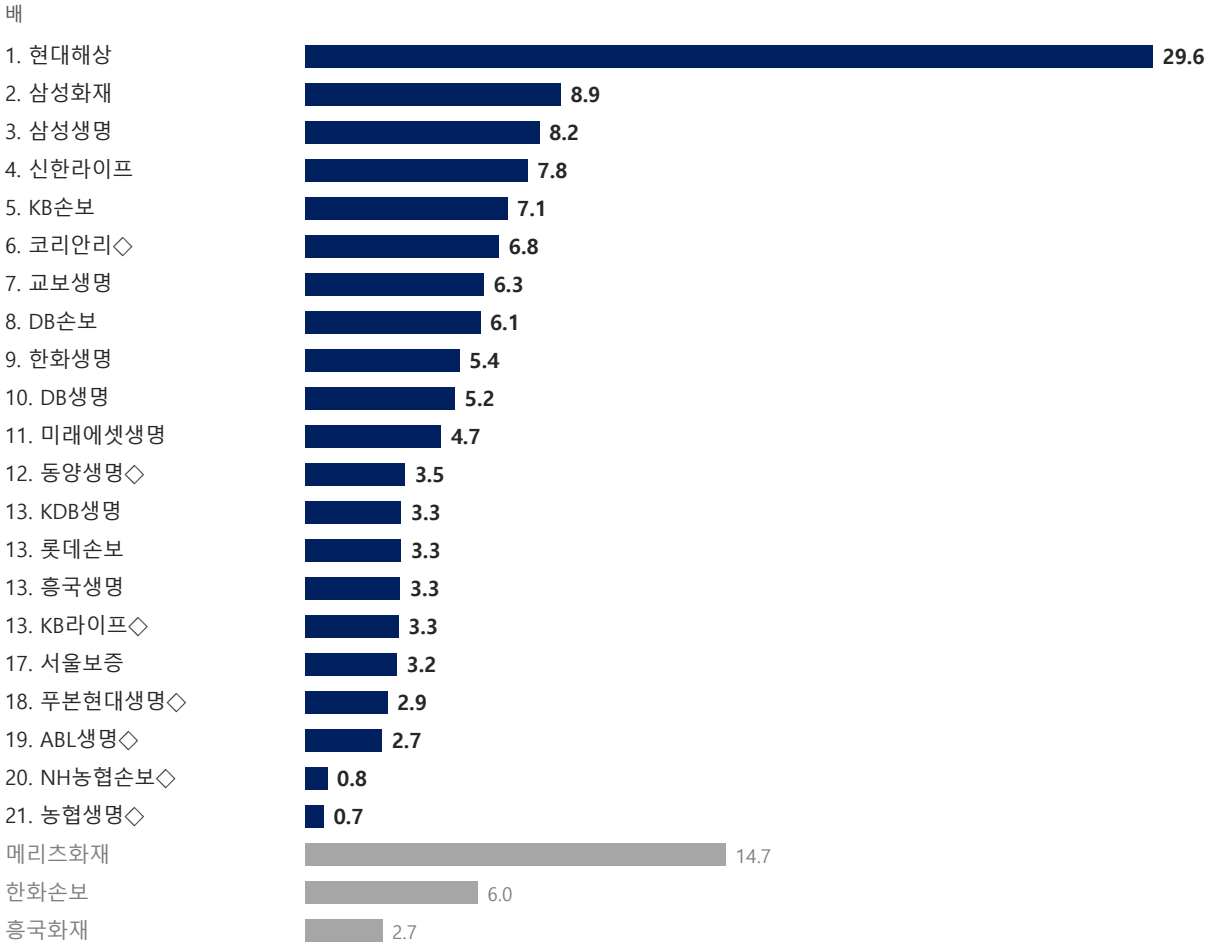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회사별 비교

2025년 등기이사 ÷ 직원: 현대해상 29.6배, 순위 21곳 중앙값 4.7배

회사마다 등기이사 1인 평균 ÷ 직원(임원 제외) 1인 평균. 직원 평균 기준이 다른 회사는 회색

2025년 등기이사 ÷ 직원 1인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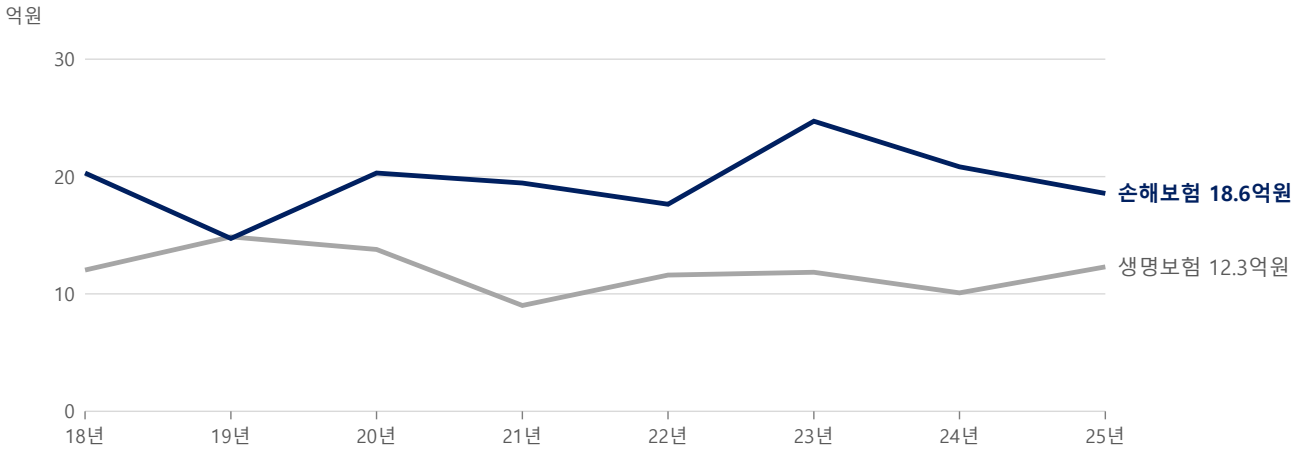
등기이사 1인 평균에는 그해 퇴임한 이사의 퇴직소득이 들어간다. 현대해상은 2025년 보수총액 5억원 이상으로 개인별 공시된 이사 중 퇴직소득을 받은 이사가 2명 확인된다. 등기이사가 몇 명뿐인 회사가 많아 한 사람의 보수가 배율을 크게 바꾼다. ◇는 공시한 등기이사 인원에 기타비상무이사가 들어 있는 회사(7곳)다. 기타비상무이사 보수 기준은 회사마다 달라(사외이사와 같은 기준이거나 무보수) 1인 평균이 상근 사내이사 보수보다 낮게 나올 수 있고, 무보수 비상임이사를 인원에서 뺀 회사도 있어 이 배율은 회사끼리 기준이 다르다. 데이터북 B-11.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회사별 공시 1위의 중앙값 2025년 생명보험 12.3, 손해보험 18.6억원

보수 상위 5명 표(5억원 이상만 공시) 1위, 공시 총액(퇴직소득 포함). 1위를 공시한 회사만

회사별 공시 1위 보수의 중앙값



연도	생명 중앙값	손해 중앙값	생명 회사	손해 회사	5억원 이상 공시 인원
2018	12.0	20.3	6	5	41
2019	14.9	14.7	7	7	56
2020	13.8	20.3	9	6	56
2021	9.0	19.4	9	7	58
2022	11.6	17.6	7	7	61
2023	11.8	24.7	9	7	69
2024	10.1	20.8	10	7	63
2025	12.3	18.6	10	7	65

5억원 이상 공시 인원은 상위 5명 표에서 확인된 사람이라 회사당 최대 5명이고, 회사 전체의 5억원 이상 인원이 아니다. 개인별 이름과 금액은 데이터북 12~14쪽.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25년 상위 5명 표 65명 중 재직 임원 28명, 퇴직소득 비중 생명보험 28%, 손해보험 41%

재직 임원은 그해 임원 명단(명단에 없는 대표·회장·사장 직위는 명단 표기 차이로 보고 포함), 전 임원은 전년 명단·前 표시·고문 직위, 명단 밖 퇴직은 직위의 前·퇴직 표시나 그 사람 산정기준 표의 희망·명예·특별퇴직·퇴직위로금 문구로 나눴다. 명단 밖 전무·상무처럼 어느 쪽으로도 판정하지 않은 사람은 미분류, 퇴직 표시가 없는 명단 밖 직원은 재직 미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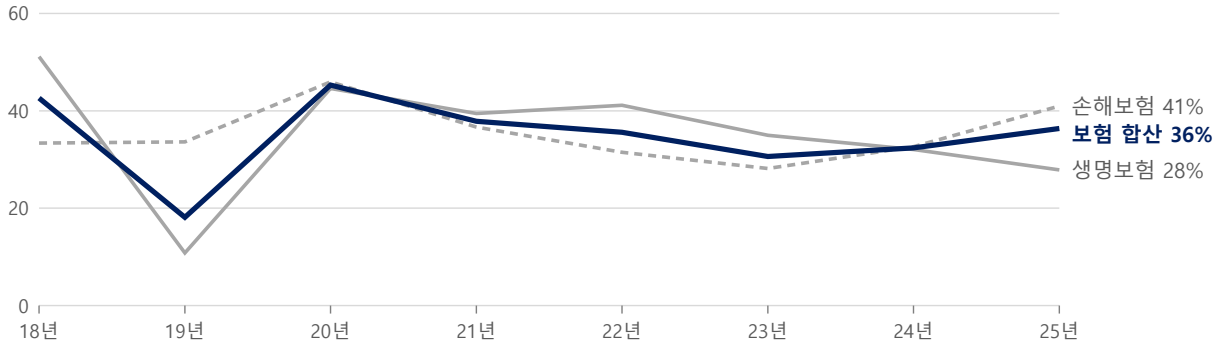
보험 상위 5명 표 구성

명

연도	재직 임원	전 임원	명단 밖, 퇴직 표시	명단 밖, 재직 미확인	미분류	합계
2018	23	10	7	1	0	41
2019	40	13	2	0	1	56
2020	33	15	6	1	1	56
2021	32	10	15	0	1	58
2022	35	12	10	2	2	61
2023	37	21	10	0	1	69
2024	37	13	10	2	1	63
2025	28	21	14	0	2	65

상위 5명 보수 중 퇴직소득 비중

%, 원문 산정기준 표



퇴직소득 비중은 보수 상위 5명 표 사람만의 값이다. 이사·감사 개인별 표와 합친 기준을 쓰는 업권 보고서와는 표본이 달라 바로 견주지 않는다. 퇴직소득 비중은 재직 판정에 쓰지 않았다. 2018~2025년 명단 밖 80명 모두 퇴직소득이 보수의 절반 이상이지만, 퇴직소득 비중이 아니라 원문 표시(직위의 前·퇴직, 산정기준 표의 희망·명예·특별퇴직·퇴직위로금 문구)로만 퇴직을 판정했고 표시가 없으면 재직 미확인으로 둔다. 데이터북 15~16쪽.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25년 상위 5명 보수: 급여·기타 36%, 상여 28%, 퇴직소득 36%

상위 5명 표 사람의 원문 산정기준 표 항목을 더해 공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냈다(항목 합이 총액과 맞는 사람만)

보험 합산, 상위 5명 보수 구성

%, 공시 총액 대비

연도	급여·기타	상여	주식보상	퇴직소득	사람
2018	28%	29%	0%	43%	41
2019	24%	18%	40%	18%	54
2020	29%	26%	0%	45%	54
2021	31%	31%	0%	38%	55
2022	32%	33%	0%	36%	61
2023	31%	38%	0%	31%	66
2024	33%	35%	0%	32%	62
2025	36%	28%	0%	36%	64

2025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

업권	급여·기타	상여	주식보상	퇴직소득	사람
생명보험	46%	26%	0%	28%	30
손해보험	30%	29%	0%	41%	34

급여·기타 = 급여 + 기타 근로소득 + 기타소득, 주식보상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 2019년 주식보상 비중은 한 회사(오렌지라이프) 임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대부분이다. 퇴직소득이 큰 해는 퇴임한 사람이 상위 5명에 들어간 해다. 사람 열은 항목 합이 총액과 일치하는 사람 수다. 2025년은 상위 5명 표에 공시된 65명 중 항목 합과 총액이 일치하는 64명 기준이다. 데이터북 16쪽.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분석의 틀: 정재경(2026)

보고서의 비교 방식을 정하는 데 쓴 논문 한 편. 회사 숫자는 모두 공시(DART)와 금융감독원 FISIS에서 가져왔다

이연지급보수

금융회사는 성과보수의 일부를 몇 년에 걸쳐 나눠 주는 이연지급보수를 널리 쓴다. 2018~2024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를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로 조사한 결과, 2024년 42곳 중 88.1%가 이 제도를 운영했다(62~63쪽). 이 보고서 성과보수 이연 장의 자료도 같은 연차보고서다.

이연지급보수는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유예한 뒤 분할지급"하는 장치다(58쪽). 그래서 한 해에 공시된 보수에는 지난 성과의 몫이 섞인다. 실적과 보수 장에서 같은 해 순이익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 방향을 본 이유다.

업권과 설계에 따른 차이

도입 수준은 업권마다 다르다. 논문은 일부 증권사와 카드업의 도입 수준이 금융지주, 은행, 보험보다 낮다고 했다(67쪽). 이연기간이나 첫해 지급 비율 같은 설계에 따라 실제 강도도 달라진다(59쪽).

> 이 논문은 제도 도입과 지배구조의 관계를 분석했고, 제도 도입의 효과(재무보고·위험추구·시장평가 등)는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68~69쪽). 이 보고서의 비율 결과를 논문 결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정재경. 2026. 경영진 보상체계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연관성: 클로백과 이연지급보수제도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128집(2026년 4월): 51~71. 한국국제회계학회. https://doi.org/10.21073/kiar.2026..128.003

자료: 정재경(2026), 국제회계연구 제128집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25년 임원 성과보수 중 이연분 생명보험 45%, 손해보험 74%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내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4년 값은 2025년 보고서의 전년도 열

임원 성과보수와 이연분

억원. 두 해 모두 값이 있는 회사 합계

업권	연도	회사	성과보수	이연액	이연 비중	연말 이연 잔액
생명보험	2024	12	354.5	148.0	42%	423.9
생명보험	2025	12	339.6	152.5	45%	486.4
손해보험	2024	11	847.1	619.7	73%	2,040.8
손해보험	2025	11	788.4	581.8	74%	2,212.4

> 이연분은 성과보수의 일부를 몇 해에 걸쳐 나눠 주는 금액이다. 그해 실제로 받은 이연분은 표준 서식에 칸이 없어 사업보고서 보수와 바로 잇지 못한다. 사업보고서 개인별 산정기준 표에서 상여에 이연분 문구가 있는지는 따로 셌다(데이터북 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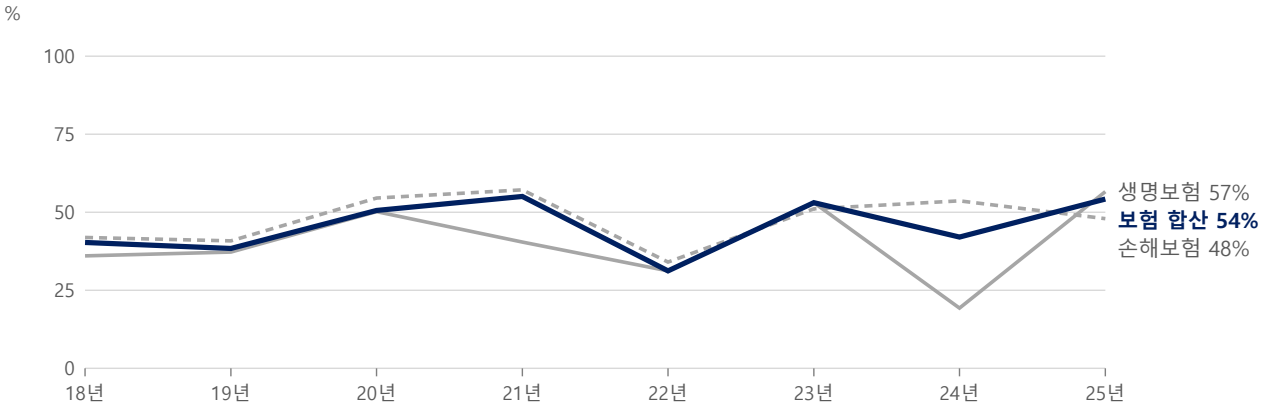
손해보험 2025년 성과보수의 65%가 메리츠화재이고, 메리츠화재를 빼면 이연 비중은 56%다. 연차보고서 수치는 회사별 공시실 원문에서 읽었고, 그중 12개를 원문 PDF에서 다시 읽어 모두 일치했다. 회사별 값은 데이터북 23쪽.

자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더밸류연구소 계산

참고 지표: 2025년 주총 한도 대비 지급률 54%(9곳 중앙값), 잠정치

이사·감사 보수 총액 ÷ 주총 승인 한도. 한도 문구가 퇴직소득 포함이면 그대로, 아니면 보수총액 5억원 이상으로 개인별 공시된 이사의 퇴직소득을 빼고 나눈다

분석 표본(원문 근거+징후 없음) 중앙값



연도	원문 근거(곳)	징후 없음(곳)	분석 표본(곳)	참고값(곳)
2018	62%(1)	38%(8)	40%(9)	39%(12)
2019	33%(1)	40%(8)	38%(9)	52%(12)
2020	51%(3)	54%(10)	51%(13)	32%(8)
2021	61%(2)	40%(9)	55%(11)	48%(11)
2022	29%(3)	43%(12)	31%(15)	47%(8)
2023	35%(1)	53%(7)	53%(8)	46%(15)
2024	29%(1)	45%(9)	42%(10)	50%(13)
2025	39%(1)	55%(8)	54%(9)	47%(14)

분석 표본은 원문 근거와 징후 없음을 합친 것으로, 비율과 무관하게 범위 신호로만 고른다. 원문 근거는 그해 사업보고서 한도 문구가 있는 경우, 징후 없음은 문구가 없고 퇴임 이사, 한도 밖 보상 주석, 원문 대조 실패, 개인별 합 > 총액 신호도 없는 경우다. 원문 근거가 있는 회사는 해마다 1~3곳뿐이다.

징후 없음은 지급액과 한도의 범위가 같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범위가 어긋난다는 신호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라 이 지급률은 참고 지표로 둔다. 업권별 표본과 판정 방법이 달라 다른 업권 지급률과 견줘 한도 여유를 비교하지 않는다. 개인별 보수총액이 공시 기준에 미달해 퇴직소득을 확인하지 못한 이사가 있어 주총 한도 대비 지급률은 잠정치다. 정관은 최근 판 하나만 보조 근거로 썼다(대부분 2025년, DB손보는 2026년 3월 개정본). 데이터북 19~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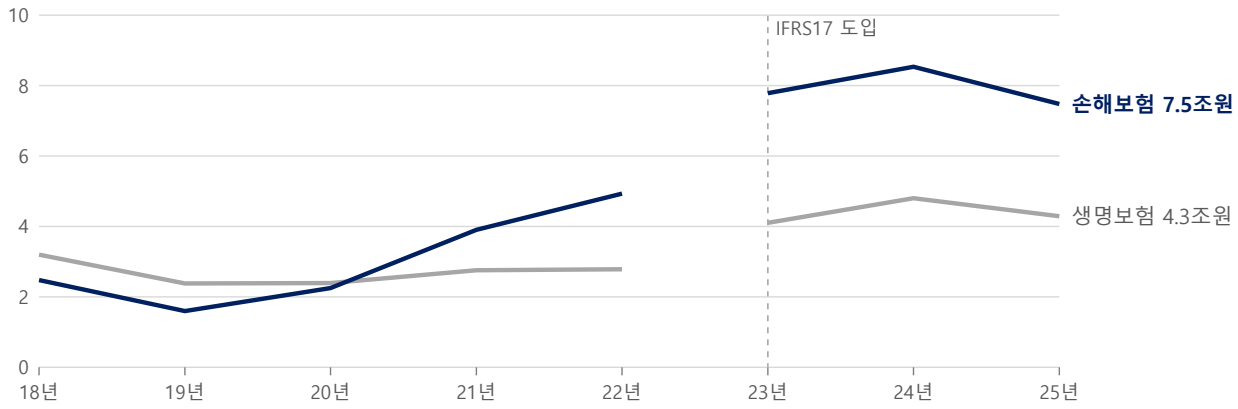
자료: DART 사업보고서 원문·주총 승인금액 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더밸류연구소 계산

순이익 합계 2025년 생명보험 42,869, 손해보험 74,763억원

별도 기준. 2023년 IFRS17 도입으로 2022년 이전과 바로 견주지 않는다(선을 끊었다)

순이익 합계

조원(표는 억원)



연도	생명보험(억원)	손해보험(억원)	생명 회사	손해 회사
2018	32,000	24,755	12	9
2019	23,824	15,966	12	9
2020	23,935	22,512	12	9
2021	27,572	39,035	12	10
2022	27,865	49,316	13	10
2023	40,998	77,825	13	10
2024	47,997	85,316	13	11
2025	42,869	74,763	13	11

2023~2025년은 FISIS와 DART 값이 다 있어 70건을 대조했고 64건이 1백만원 안에서 같았다. 다른 6건 중 5건은 FISIS 값이 다음 해 사업보고서의 재작성 전기 값이었다. 본문은 그해 최초 공시 값을 쓴다. 데이터북 24·87쪽.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실적과 보수

지난해 순이익이 늘어난 회사-연도에서 미등기임원 1인 평균이 오른 비율 71%, 줄어든 곳 42%

순이익이 늘었나 줄었나로 회사-연도를 나눠 1인 평균이 오른 비율을 셌다. 같이 움직였는지만 보고 원인은 단정하지 않는다

순이익 방향별 1인 평균이 오른 비율

같은 해와 지난해 순이익 방향이 모두 있는 같은 회사-연도(동일 표본). 범위는 회사 단위로 5,000번 다시 뽑은 95% 범위, %p

업권·대상	순이익	늘어난 곳	줄어든 곳	차이	95% 범위
생명보험 직원	같은 해	87%(20/23)	65%(15/23)	+21.7%p	+3.4~+40.1
생명보험 직원	지난해	82%(28/34)	58%(7/12)	+24.0%p	−6.0~+59.2
생명보험 미등기임원	같은 해	57%(13/23)	65%(15/23)	−8.7%p	−39.1~+20.1
생명보험 미등기임원	지난해	71%(24/34)	33%(4/12)	+37.3%p	+2.2~+71.4
손해보험 직원	같은 해	84%(16/19)	78%(7/9)	+6.4%p	−30.1~+40.2
손해보험 직원	지난해	89%(16/18)	70%(7/10)	+18.9%p	−21.1~+64.7
손해보험 미등기임원	같은 해	62%(16/26)	73%(8/11)	−11.2%p	−38.3~+22.4
손해보험 미등기임원	지난해	72%(18/25)	50%(6/12)	+22.0%p	−2.4~+57.5
보험 합산 직원	같은 해	86%(36/42)	69%(22/32)	+17.0%p	−1.0~+34.4
보험 합산 직원	지난해	85%(44/52)	64%(14/22)	+21.0%p	−4.1~+48.8
보험 합산 미등기임원	같은 해	59%(29/49)	68%(23/34)	−8.5%p	−28.7~+12.0
보험 합산 미등기임원	지난해	71%(42/59)	42%(10/24)	+29.5%p	+8.3~+55.0

회색 행은 한쪽 분모가 20건 미만이라 비교하지 않는다. 회색이 아닌 행 중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2개(보험 합산 미등기임원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직원 같은 해 기준)다. 보험 합산 미등기임원의 지난해 기준 차이는 +29.5%p(범위 +8.3~+55.0%p)다. 같은 해 기준 미등기임원은 차이가 −8.5%p였다. 같은 해와 지난해 기준의 효과 차이는 직접 검정하지 않았다.

표본(직원): 연봉 증감이 있는 152건에서 평균 기준 제외 18건(대상과 방법 쪽의 제외 18개 회사-연도가 앞 해나 뒤 해로 들어간 증감. 한 회사-연도가 두 증감에 걸리기도 한다)을 빼고, 같은 해 분석은 2023년 순이익 방향을 뺀 114건, 지난해 분석은 2019·2024년과 전년 자료 없음을 뺀 92건이다. 둘 다 있는 동일 표본이 74건이다. 같은 회사가 여러 해 반복 관측된 자료다. 회사 수가 적어 상관계수는 쓰지 않았다. 데이터북 25~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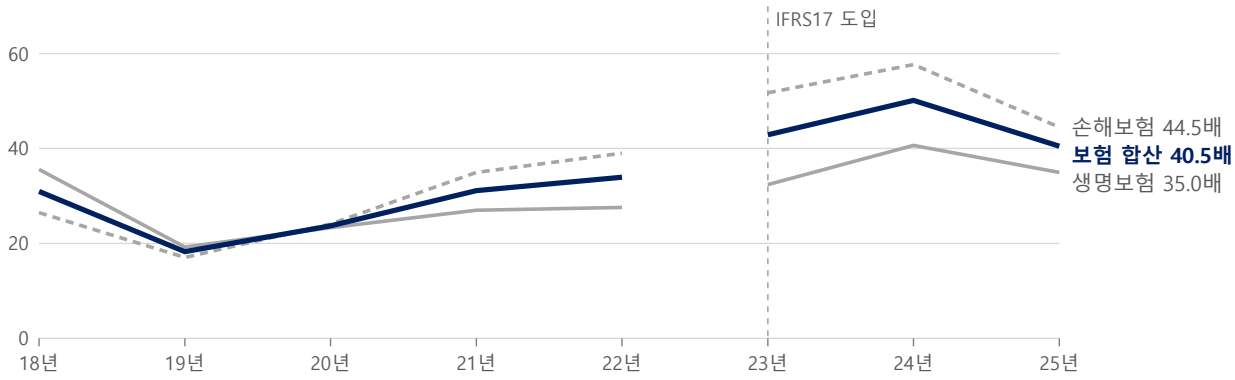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25년 순이익 ÷ 임원 보수 생명보험 35.0배, 손해보험 44.5배

임원 보수 = 등기이사 + 미등기임원 지급 총액. 순이익과 임원 보수가 다 있는 회사 합계끼리. 2022→2023은 IFRS17로 선을 끊었다

순이익 ÷ 임원 보수

배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 합산	보험 임원 보수(억원)	보험 순이익(억원)
2018	35.6	26.5	30.9	1,834	56,754
2019	19.2	17.0	18.3	2,178	39,790
2020	23.3	24.1	23.7	1,962	46,447
2021	27.0	34.9	31.1	2,139	66,607
2022	27.6	39.0	33.9	2,275	77,181
2023	32.4	51.7	42.9	2,770	118,823
2024	40.6	57.7	50.1	2,660	133,313
2025	35.0	44.5	40.5	2,907	117,632

배수는 계산 결과일 뿐 보수 수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표 오른쪽 두 열은 그해 배수를 낸 회사들의 임원 보수와 순이익 합계라 해마다 회사 구성이 조금씩 다르고, 순이익은 2023년부터 IFRS17 기준이다. 데이터북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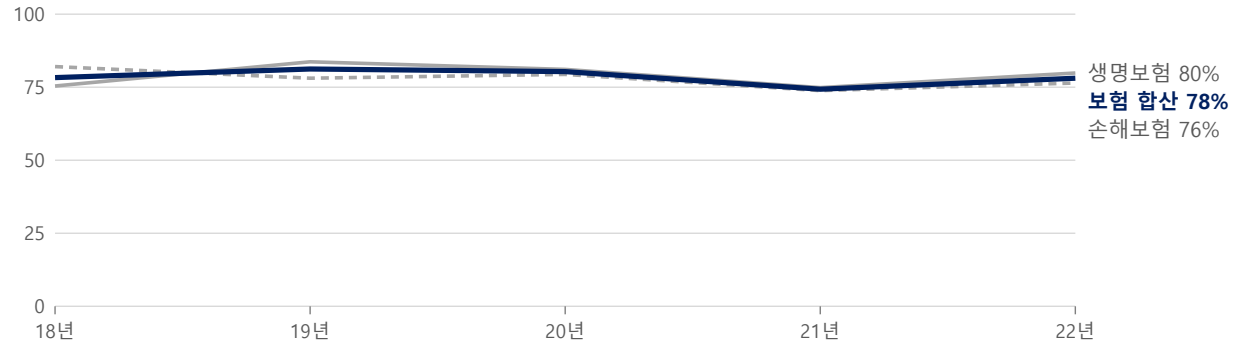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22년 공시 급여는 인건비의 생명보험 80%, 손해보험 76%, 순이익은 인건비의 1.10배, 1.31배

인건비 = 재무제표 주석(사업비·손해조사비·재산관리비)의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공시 급여 = 직원 현황 + 등기이사 지급액

공시 급여 ÷ 인건비

%, 전체 범위 회사 합계끼리(2018~2022년)



연도	공시 급여 ÷ 인건비 생명(곳)	손해(곳)	순이익 ÷ 인건비 생명(배)	손해(배)
2018	75%(12)	82%(7)	1.36	1.06
2019	84%(12)	78%(7)	1.05	0.72
2020	81%(12)	79%(7)	1.00	0.92
2021	75%(12)	74%(8)	1.08	1.14
2022	80%(13)	76%(8)	1.10	1.31
2023	74%(3)	·	·	·
2024	69%(3)	·	·	·
2025	77%(5)	·	·	·

공시 급여에는 퇴직급여 적립이 빠지고, 회사에 따라 복리후생비도 빠져 인건비보다 작다. 2023년부터 IFRS17 주석은 보험계약에 배부된 사업비의 인건비를 항목으로 내지 않는 곳이 많아 전체 범위 회사가 적다(회색). 순이익 ÷ 인건비는 같은 회사의 별도 순이익 합 ÷ 인건비 합이고 2022년까지만 냈다. 다음 해 보고서 전기 열과 다른 29건의 원인과 영향은 데이터북 29~30쪽.

자료: DART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임원 보수·직원 현황 / 더밸류연구소 계산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생명보험 +18.8%, 손해보험 +10.8%

2026년 1~6월과 2025년 1~6월. 지표마다 두 반기 값이 다 있는 회사끼리라 회사 수가 다르다(괄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괄호는 회사 수. 공통은 세 지표가 다 있는 회사의 순이익, 직원, 미등기 증감률

업권	순이익	직원 1인 평균	미등기 1인 평균	공통 회사	공통: 순이익, 직원, 미등기
생명보험	+18.8%(13)	+0.6%(13)	−2.9%(13)	13	+18.8%, +0.6%, −2.9%
손해보험	+10.8%(11)	+7.7%(9)	+1.5%(11)	9	+13.8%, +7.7%, +3.0%
보험 합산	+13.9%(24)	+4.3%(22)	−1.0%(24)	22	+16.1%, +4.3%, −0.4%

순이익 방향별 직원 1인 평균 증감률

직원 비교에 들어간 회사 중 두 반기 순이익이 다 있는 곳(전년 적자 포함, 금액 차이)

업권	회사	순이익 증가	순이익 감소	전년 적자	증가한 곳 중앙값	감소한 곳 중앙값
생명보험	13	8	5	2	+7.3%	+3.4%
손해보험	9	5	4	0	+4.2%	+5.7%
보험 합산	22	13	9	2	+4.8%	+3.7%

회색 행은 증가·감소 한쪽이 20곳 미만이다. 6개월치라 연간 값과 바로 견주지 않는다. 상반기 보수에는 전년 성과급 지급 시점이 섞일 수 있다. 직원 1인 평균은 평균 기준이 다른 회사를 뺐다. 회사별 값은 데이터북 31~33쪽.

자료: DART 2025·2026 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

한계와 데이터북 안내

공시 범위 밖의 것은 쓰지 않았다

항목	한계
개인 보수	등기임원은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이면 개인별로 공시된다. 미등기임원·직원은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이면서 회사 내 상위 5명에 들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사 퇴직금	개인별 보수총액이 공시 기준에 미달해 퇴직소득을 확인하지 못한 이사가 있어 주총 한도 대비 지급률은 잠정치다
반올림	증감률과 비중은 반올림 전 원값으로 계산했다. 표시값으로 계산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구성비 합계는 반올림으로 100%와 다를 수 있다
직원 평균	회사마다 인원 기준과 급여 집계 범위가 달라 업권 평균은 혼합 기준이다
공시 단위	공시 원문에 단위가 잘못 적힌 2건(DB생명 2018년 직원 현황은 '원' 표기·실제 천원, 농협생명 2019년 등기이사 보수는 '원' 표기·실제 백만원)은 금액 규모에 맞춰 단위를 바로잡아 썼다
순이익	2023년 IFRS17 도입으로 2022→2023 비교를 끊었다. 2023년 이후 재작성 값과 최초 공시 값이 다른 회사가 있다
실적과 보수	회사 수가 적고 같은 회사가 반복 관측돼 비율 차이의 범위가 넓다. 상관계수와 회귀는 쓰지 않았다
인건비	2023년부터 전체 범위 인건비를 공시하는 회사가 적어 업권 대표값이 아니다

데이터북(보험사 임원·직원 보수 시계열, 88쪽)

본문 숫자의 회사별 값과 원래 그래프

장	쪽	내용
A. 업권 시계열	7~33쪽(27쪽)	본문 그래프의 원래 쪽과 한도, 이연, 인건비 세부
B. 지표별 회사×연도 표	34~58쪽(25쪽)	12개 지표를 회사별로 2018~2025년(+2026 상반기)
C. 회사별 카드	59~86쪽(28쪽)	보험사 한 곳의 보수 시계열을 한 쪽에
표지·방법·부록	1~6, 87~88쪽(8쪽)	대상, 기간, 차감 조건, 표본별 평균, 자료 점검

숫자는 공시 원값과 그 계산값만 쓴다. 본문과 데이터북의 숫자는 원자료를 따로 읽는 검증 스크립트로 대조했다.

자료: DART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FISIS / 더밸류연구소 계산